



세영애드 고모리 S32도입식

## 고품질인쇄 구현과 글로벌 경영 추구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에 위치한 세영애드(대표 염태수)는 구랍 16일 본사 사옥 회의실에서 주요 고객사 및 인쇄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모리의 4×6반절기인 리스론 S32의 도입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도입식이어 현장에서의 실제와 같은 가동을 선보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염태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종합디자인회사는 품질 면에서 부족하다는 일부 고객들의 뿌리 깊은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 3년마다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온데 이어 세영애드가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되는 고모리의 리스론 32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장비로 고객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모리코퍼레이션의 썬카모토 해외영업본부장은 “고모리는 썬쿠바에 있는 품질연구소 및 각종 장비를 통해 고객들이 요청하는 인쇄물에 대한 테스트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지역 고

객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진PMS의 이재수 부사장은 “고모리 인쇄기의 뛰어난 성능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입식을 하는 세영애드에게 감사드린다”며 “일진PMS는 고모리와 함께 고객에 수익 창출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과 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연회는 생산된 인쇄물 진열, 리스론 S32의 생산성에 대한 소개, 친환경성, 짧은 작업 전환 등의 특징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장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다양한 요구에 적시 대응해 시장 창출 돕는 리스론 S32

고모리코퍼레이션은 리스론 S32를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전략인쇄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4×6 반절기임에도 리스론 S32는 0.04mm의 초박엽지에서 0.8mm의 후

지까지 인쇄할 수 있어 서적, 출판물의 소롯트 인쇄는 물론 팩키지 및 카드 등의 후지인쇄까지 폭넓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시간당 16,000매에 달하는 빠른 인쇄 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시간비용의 절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으며 사용고객사들의 상황에 적합하게 다양화되어 있는 옵션은 고부가가치 인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스론 S32의 특징점을 부문별로 소개한다.

### 환경 친화형 인쇄기를 지향

리스론 S32는 고모리가 지향하는 '자원, 에너지, 노동력'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다. KHS-AI(고모리 하이퍼 시스템)를 채택, 손지 절감을 실현하고 있으며 고효율의 인버터 모터를 채용하고 각종 자동화, 디지털화 구조 및 장치를 채용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무알콜 인쇄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며 잉크 카트리지를 자동공급 장치를 채용할 수 있고 무급유 베어링을 채택해 산업폐기물을 크게 줄이고 있다.

###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쇄 준비시간 대폭 앞당겨

리스론 S32는 고모리의 첨단 기술을 대폭적으로 채택한

각종 자동화장치를 구현하고 있다. 4×6 반절 매업인쇄기로서는 처음으로 4개의 판을 2분 50초 만에 교체할 수 있는 전자동 판 교환장치를 탑재하였으며 블랭킷, 압통, 잉크 등의 세척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벤더리스 APC클램프를 채택해 판 끼기 공정 없이도 급배판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정밀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 생산성과 작업의 편의성이 높아 졌다.

### 소롯트 및 단납기의 극대화

리스론 S32가 지닌 특징점의 하나로 소롯트 대응과 단납기 실현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갈수록 중시되고 있는 소량 다품종 주문과 장시간의 고속인쇄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특히, 고모리 하이퍼 시스템은 자기학습 기능이 채택된 시스템으로 기계 및 환경, 인쇄자재의 변화에 맞춰 자동적인 자기보정을 반복적으로 실시, 최적의 색맞춤을 실현한다. 또한 CIP4/JDF에 대응하는 K-Station과 KHA-AI 조합을 통해 인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일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경영 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r

## 미니 인터뷰 \_ 엽태수 대표

# “인내심 갖고 접근하면 중국은 무한 가능성의 시장”

95년에 설립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부산지역에서 세영애드라고 하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사실 특별한 비결이라고 말씀 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품질의 인쇄물을 제작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납품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적인 요구인 매체의 다양화와 디지털 제작기술에 대한 대비를 해온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이번에 고모리 인쇄기를 선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회사 설립이후, 처음부터 고모리 기계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당시 원하는 규격의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으로 타사 인쇄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고모리에 4×6반절기 공급을 꾸준히 요구했었고 이번에 나오게 되어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모리 인쇄기의 성능과 인쇄물의 품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및 중국에서도 인쇄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또한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난 2002년에 중국에 복경지사를 설립하면서 중국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어 2005년 청도지사를 설립하고 2006년에는 미국 지사(달라스 소재)를 설립하고 2008년에는 일본 도쿄 지사를 설립해 미흡하나마 글로벌 경영의 토대는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본 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데 일본 고객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일이지만 일단 인정을 받으면 안정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국내 시장에 비해 수익성이 좋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현재 중국시장 분위기는 우리 나라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끊임없이 본사 차원에서의 투자를 지속해야만 성공에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